

KREI 이슈+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이슈플러스



이기현 | 부연구위원
khlee0912@krei.re.kr

김상호 | 연구위원
skim@krei.re.kr

쌀 수급 및 가격 동향

KEY MESSAGE

- 쌀 수급 상황은 대체로 균형 수준으로 평가되나, 농가 재고량과 소비 수준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성이 상존함.

SUMMARY

- 2025년산 쌀 생산량 재배면적 줄어 전년 대비 감소 전망
- 가계 쌀 구매량은 감소세이나 외식과 사업체 쌀 소비량은 증가
- 수급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
- 벼 매입 부진으로 산지가격 하락세 둔화
- 공공 비축미 가격 결정 이후의 가격 추이 관찰 필요

01 쌀 공급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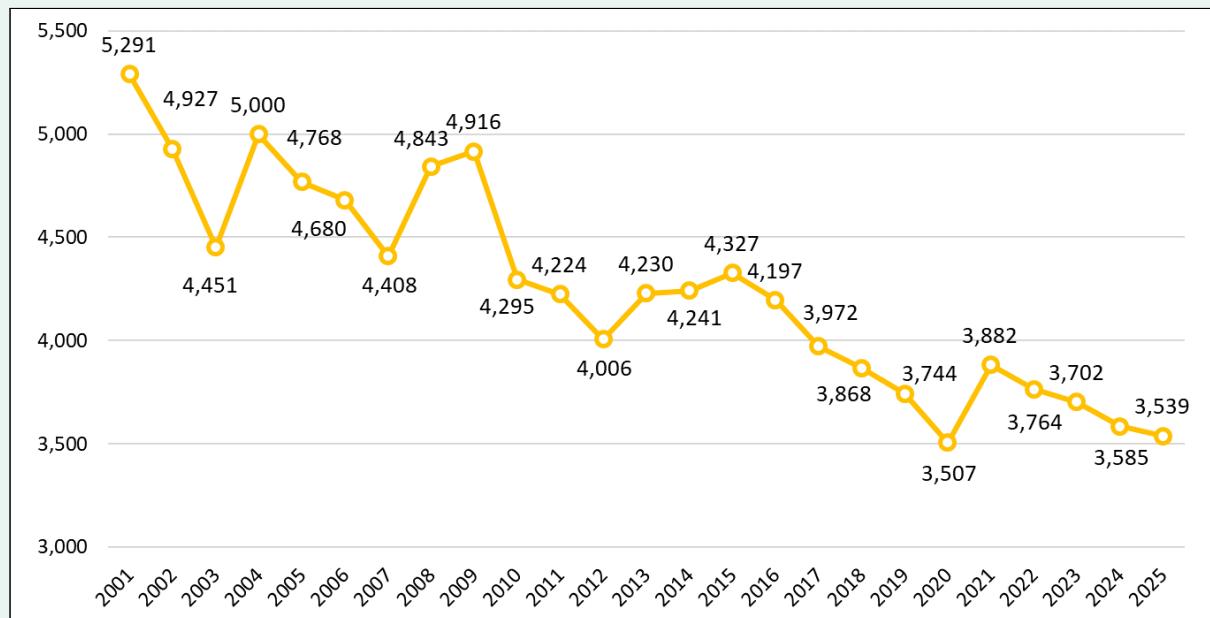


2025년산 쌀 생산량 재배면적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함.

- 등숙기 기상 악화와 병해 확산 등으로 실제 수확량은 예상치보다 감소 폭이 확대됨.
 -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산 쌀 생산량은 353만 9,000톤으로 전년 대비 1.3%p 감소한 수준이었음.
 - 등숙기(9~10월)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과 일조 부족으로 깨씨무늬병과 수발아 피해가 확산하면서 단수 증가 폭이 제한됨. 단수는 잡정치(527kg/10a) 대비 약 5kg 감소하여 522kg/10a로 발표됨.
 - 10월 중순 표본 농가 조사에서도 응답 농가의 46.4%가 벼 생육이 전월 대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. 다만, 벼멸구 피해가 커진 전년보다는 피해가 적어 작년보다 단수는 증가함.

〈그림 1〉 쌀 생산량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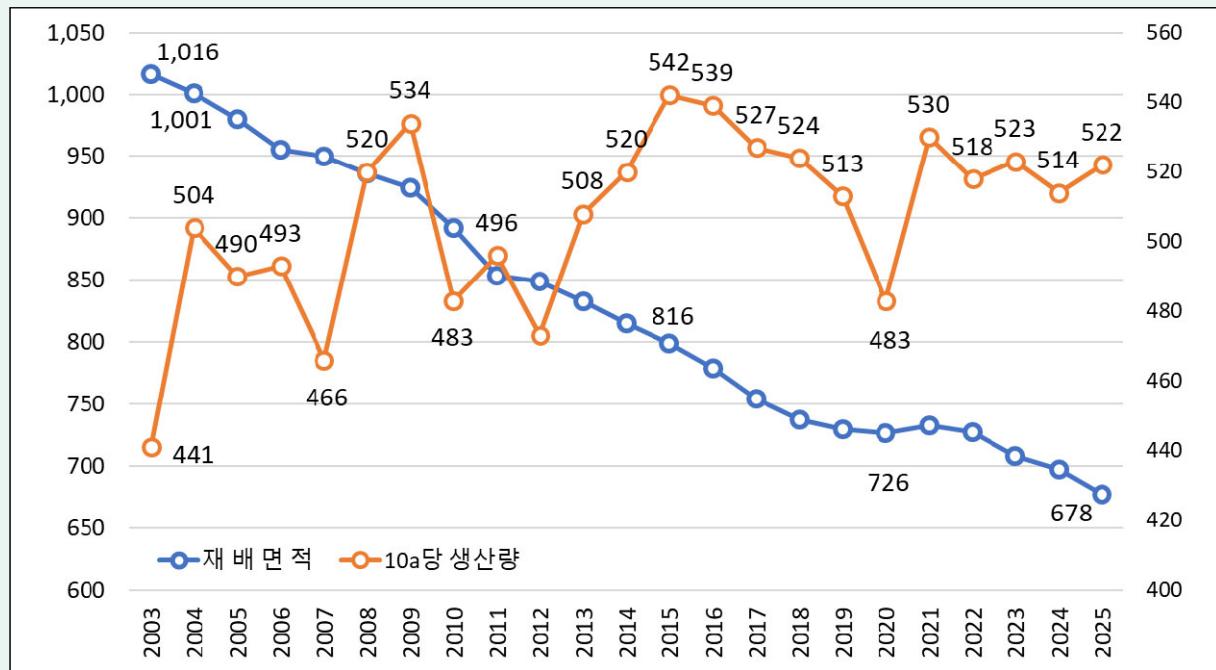
단위: 천 톤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(2025. 11. 13.), “2025년 재배면적(확정) 및 농작물 생산량조사 결과—쌀—”.

〈그림 2〉 벼 재배면적 및 10a당 쌀 단수 변화추이

단위: 천 ha(재배면적), kg(10a당 생산량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(2025. 11. 13.), “2025년 재배면적(확정) 및 농작물 생산량조사 결과—쌀—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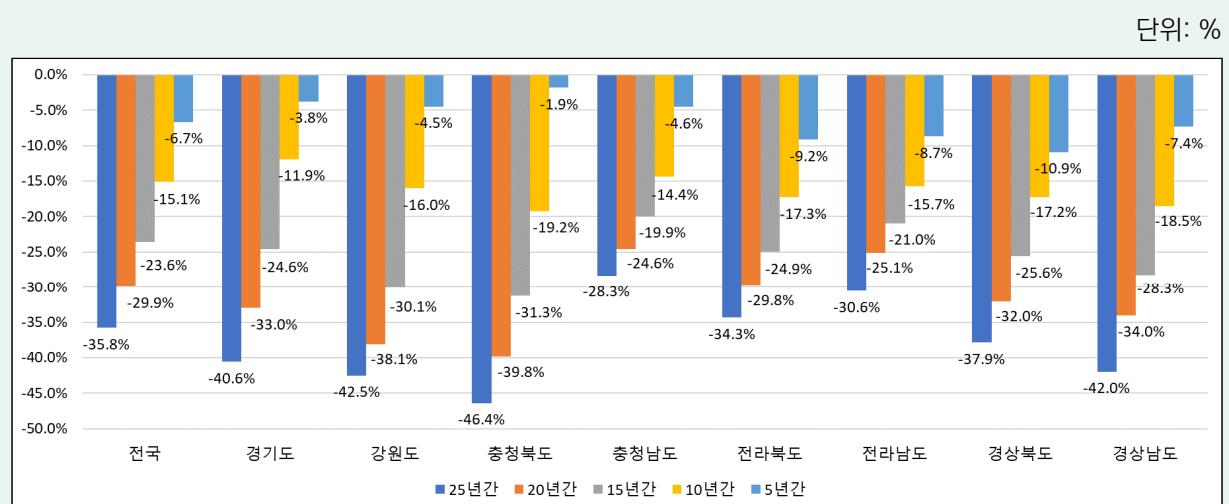
벼 재배면적은 최근 25년간 경기도, 강원도, 충청북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.

- 전체 벼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.9% 감소한 7,514ha였으며 이는 적정 생산 정책 추진(전략 작물직불제,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) 등의 영향으로 보임.
- 전국 평균 변화율은 25년간 35.8% 감소했으나 경기도는 40.6%, 강원도는 42.5%, 충청북도는 46.4%, 경상북도는 37.9%, 경상남도는 42% 재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(그림 3).
-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는 각각 28.3%, 34.3%, 30.6% 감소하여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감소율을 기록함.
- 경상북도, 경상남도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배면적 감소율이 각각 17.2%, 18.5%로 나타났으며,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감소율로 면적 감소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| 쌀 생산은 전남과 충남을 중심으로 재배면적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음.

- 영남지방의 재배면적 점유율은 2000년에 23%였으나 2025년에 21.7%로 소폭 하락함. 반면 전남과 충남의 점유율은 동기간 36%에서 39.5%로 상승함.

〈그림 3〉 도별 벼 재배면적 기간별 변화 추이(25년간: 2000~2025, 20년간: 2005~2025, 15년간: 2010~2025, 10년간: 2015~2025)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농업면적조사.

〈그림 4〉 도별 벼 재배면적 점유율 변화

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농업면적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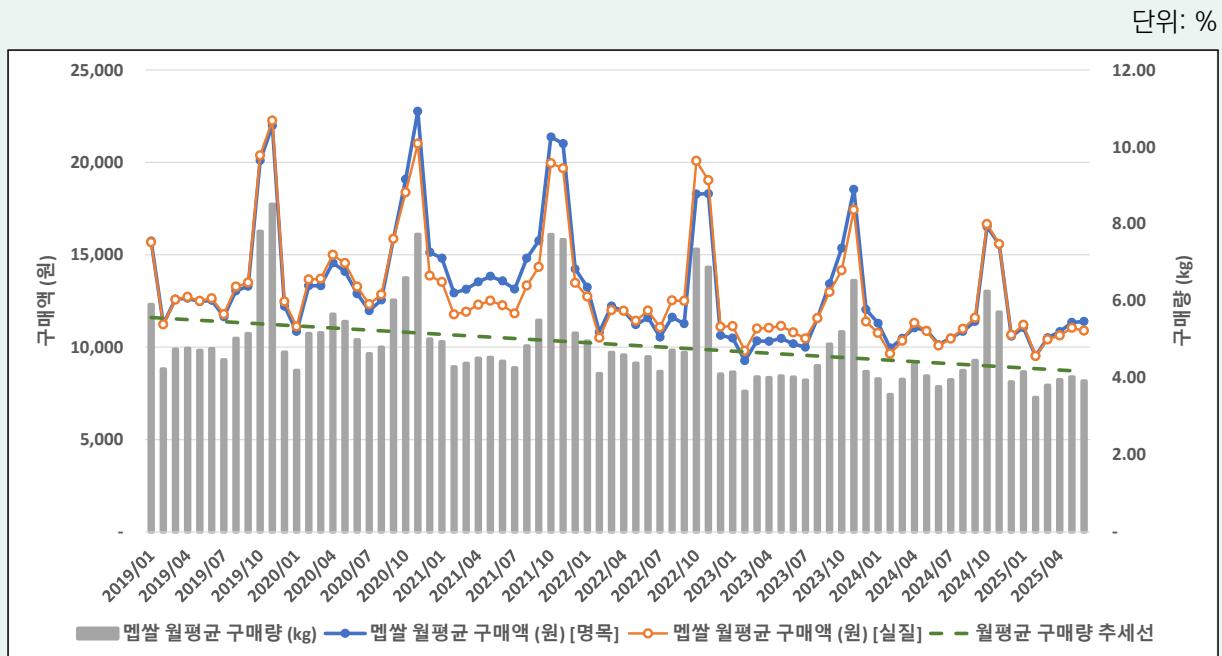
02 쌀 수요 현황



전반적으로 가구 월평균 쌀 구매량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.

- 2019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가구(농림어가포함) 원자료에서 멱쌀 구매액을 기준으로 가구 월평균 쌀 구매량을 추정함.
 -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세부 항목 중 멱쌀은 '멥쌀, 정부미, 일반 현미, 일반 흑미, 인삼쌀 등(씻은 쌀, 영양쌀 포함)'으로 곡물에 분류되어 있음.
 - 가구 월평균 쌀 구매량은 쌀 20kg 소매가격을 1kg 단위로 환산한 후, 평균 쌀 지출액(명목)을 환산한 값으로 나누어 추정함.

〈그림 5〉 쌀 구매액, 구매량 변화 추이



주: 멱쌀 월평균 구매액(명목)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에서 가중평균으로 산출된 값임. 멱쌀 월평균 구매량은 월평균 구매액(명목)을 쌀 20kg 소매가격으로 적용하여 추정한 값임. 월평균 실질 구매액은 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임.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가구(농림어가포함) 원자료 중 멱쌀 명목 지출액; 한국은행(각 연도), 경제통계 시스템 중 소비자물가지수;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KAMI(각 연도), 쌀 20kg 소매가격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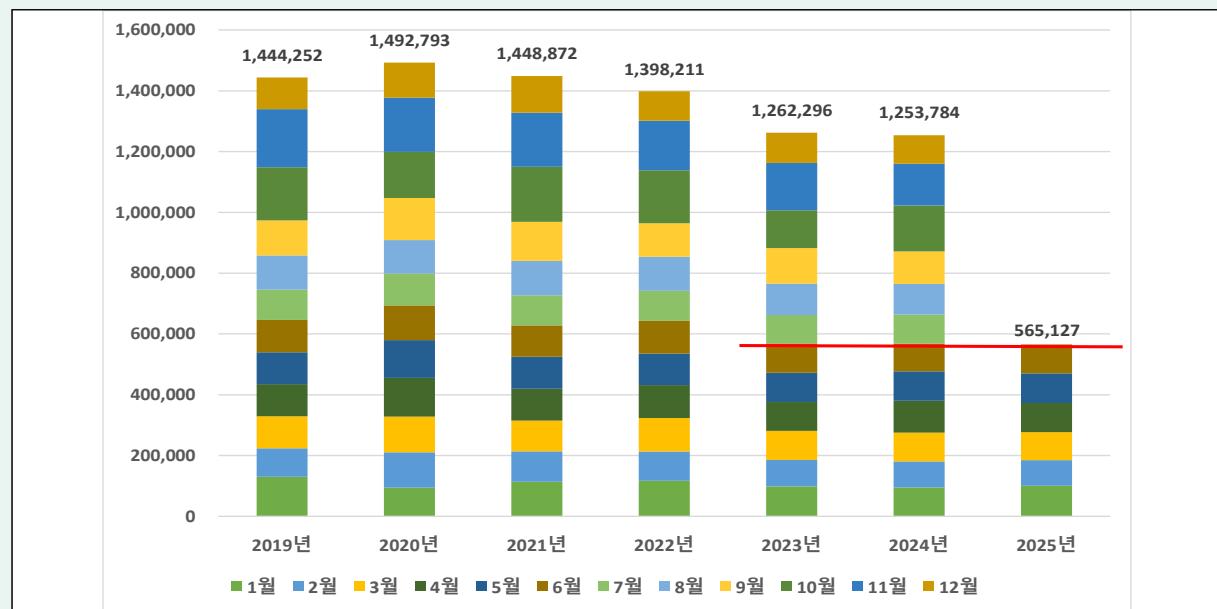
- 가구 월평균 쌀 구매량은 2019년 1월 5.91kg에서 시작하여 구매액과 유사한 변동 패턴을 보임. 특히, 분석 기간 동안 10월 및 11월에 구매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나타났는데, 이는 이 시기 본격화되는 신곡 출하 및 추석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됨.
- 구매량이 연간 최고 수준(peak)을 기록하는 11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, 가구 월평균 쌀 구매량은 2019년 8.51kg에서, 2020년 7.73kg, 2021년 7.59kg, 2022년 6.87kg, 2023년 6.53kg, 2024년 5.71kg까지 감소세를 보임. 구매량 최고 수준을 보이는 햅쌀 구매 시즌(10~11월)에서의 구매 추정량도 연도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
2023년 이후 가계 쌀 총구매량 정체 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임.

- 쌀 총 구매량을 전국 월별 주민등록세대수(행정안전부, 각 연도, 주민등록인구현황)에 가계 월평균 쌀 구매 추정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정함.
- 쌀 총 구매 추정량은 2019년 연간 144.4만 톤에서 2020년 149.3만 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. 2021년에는 144.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.9% 감소한 후 2022년 139.8만 톤(전년 대비 -3.5%), 2023년 126.2만 톤(전년 대비 -9.7%)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음. 2024년에도 125.4만 톤으로 감소하며 추이를 이어감.
- 2025년에도 상반기까지 56.5만 톤을 기록하며, 전년 상반기 56.8만 톤에 비해 0.51% 감소함. 이러한 상반기의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, 2025년 가계 쌀 총 구매 추정량은 124.7만 톤 수준으로 전망됨.
-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월별 구매 추정량 구성상 큰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.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~6월 월별 구매 추정량 구성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, 가계의 쌀 총 구매는 3년째 정체 내지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인 것으로 판단됨.

〈그림 6〉 쌀 총 구매 추정량의 월별 구성 추이

단위: 톤



주: 가계 쌀 총구매량은 전국 월별 주민등록세대수에 가계 월평균 쌀 구매 추정량을 곱하여 추정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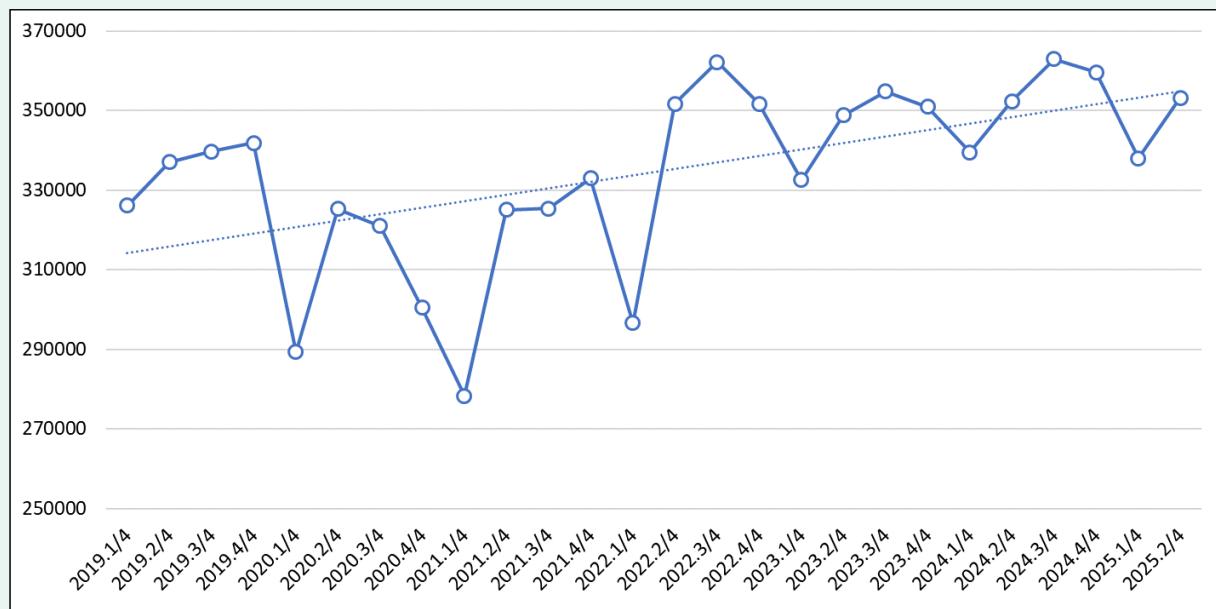
자료: 행정안전부(각 연도), 주민등록인구현황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.

가계 실질 식사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외식 쌀 소비는 증가 가능성이 있음.

- 가계 분기별 실질 식사비는 2020~2021년 사이 약 28만 원 대로 하락했으나 이는 COVID-19의 영향으로 보임.
- 2021년 1분기 이후 상승하여 2025년 2분기 약 35만 원으로 나타남.
- 이는 외식산업 구성비와 식재료 사용비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외식 쌀 소비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며 지속적 관찰 필요한 부분임.

〈그림 7〉 분기별 가계 실질 식사비 변화 추이

단위: 원



주: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세부항목 중 식사비 지출금액을 사용함. 월평균 실질 구매액은 쌀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하여 추정한 값임.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가구(농림어가포함) 원자료 중 식사비 명목 지출액; 한국은행(각 연도), 경제통계시스템 중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저자가 작성함.

사업체 부문별 쌀 소비량은 2020년 이후 증가 추세임.

- 전체 사업체 쌀 소비량은 2020년 65만 톤에서 2025년 약 87만 톤으로 증가함.
- 기타 곡물 가공품, 도시락류,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의 경우 2020년 일시감소 이후 성장세를 나타냄. 떡류의 경우 2020년 감소 후 2023년까지 성장함.
- 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쌀 사용량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.
- 주정 제조업 쌀 사용량은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(약 12만 톤)하다 최근 대폭 증가함(2024년 약 23만 톤 사용).
- 수입쌀 사용이 대부분인 주정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의 전반적인 쌀 사용량이 늘어 분석 기간 내 수입쌀 사용량이 연간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국산 쌀 사용량 증가를 유추할 수 있음.

〈표 1〉 사업체 부문별 쌀 소비량 변화 추이

단위: 천 톤, %

구분	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계	소비량	744	650	680	691	817	873
	증가율	-	-12.6%	4.6%	1.7%	18.2%	6.9%
식료품제조업 총계	소비량	495	437	475	516	558	585
	증가율	-	-11.7%	8.7%	8.7%	8.2%	4.8%
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	소비량	56	55	61	64	80	87
	증가율	-	-2.0%	11.0%	5.0%	25.5%	8.5%
전문제품 및 당류 제조업	소비량	13	11	11	12	14	14
	증가율	-	-14.9%	-4.0%	8.7%	17.3%	-1.6%
떡류 제조업	소비량	177	159	177	185	214	200
	증가율	-	-9.8%	11.0%	4.7%	15.6%	-6.7%
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	소비량	9	10	10	10	13	11
	증가율	-	4.6%	3.8%	1.8%	28.0%	-19.8%
면류,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	소비량	20	20	22	20	18	12
	증가율	-	-2.6%	13.0%	-8.3%	-13.6%	-32.1%
장류 제조업	소비량	9	8	8	9	11	9
	증가율	-	-14.9%	3.0%	11.0%	21.0%	-19.7%
도시락류 제조업	소비량	47	40	47	47	52	57
	증가율	-	-14.0%	16.2%	0.7%	10.7%	9.8%
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	소비량	98	103	114	145	130	163
	증가율	-	4.6%	10.4%	27.2%	-10.0%	25.0%
음료제조업 총계	소비량	249	213	205	176	259	289
	증가율	-	-14.4%	-3.8%	-14.5%	47.6%	11.5%
탁주 및 약주 제조업	소비량	50	43	45	47	53	51
	증가율	-	-12.4%	4.0%	3.2%	14.2%	-4.4%
주정 제조업	소비량	191	158	153	122	197	229
	증가율	-	-17.6%	-2.7%	-20.6%	61.9%	16.0%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양곡소비량조사.

03 최근 쌀 가격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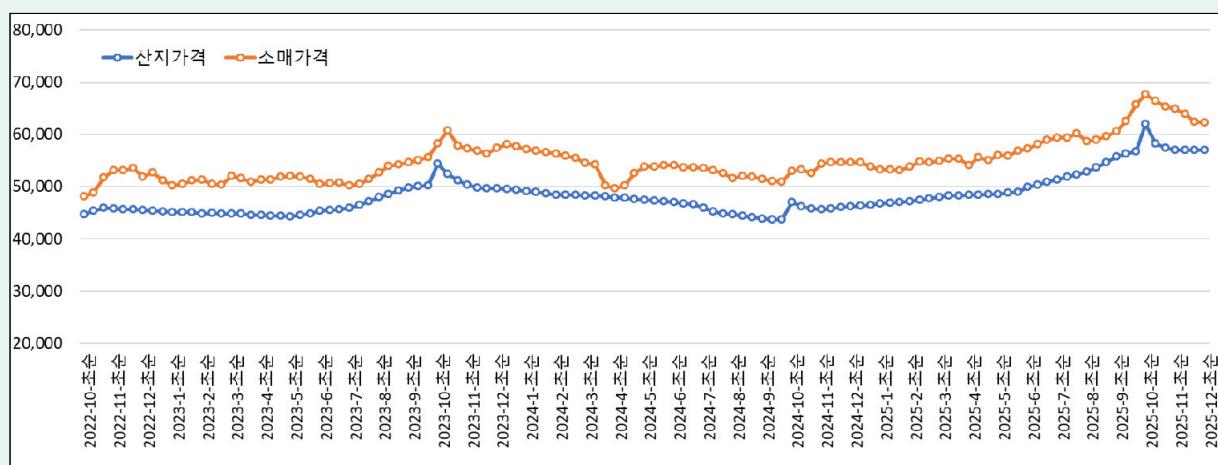


2025년 산지 및 소비자 가격, 전년 및 평년 대비 강세를 보임.

- | 2024년산 생산량 감소와 도정수율 하락, 2025년산 출하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소비자 가격 상승세를 견인함.
- 2025년 단경기에는 산지유통업체의 재고 소진과 공급 부족으로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산지 벼 가격과, 쌀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음.
 - 8~9월 정부양곡 5만 5천 톤이 추가 공급되며 일시적 안정세를 보였으나, 10월 민간 재고 부족과 깨씨무늬병 및 수발아 등의 병해 확산, 잦은 강우로 인한 2025년산 신곡 출하 지연으로 가격 상승이 지속되었음.
 - 산지 및 소비자 가격은 2025년 10월 초순 연중 최고점을 기록(각각 6만 1,988원, 6만 7,704원) 했으나, 이후 하락하여 11월 초순에 각각 5만 6,954원과 6만 4,960원, 12월 초순에 각각 5만 6,974원과 6만 2,203원을 나타냄.
 - 10월 최고점 이후 소비자 가격은 하락세이나 산지가격은 5만 7,000원 전후를 유지하고 있음.

〈그림 8〉 산지 쌀 가격과 소비자 가격 추이

단위: 원/20kg



주: 2023년 9월과 10월에 나타난 가격 상승은 구곡 재고 부족과 생산량 감소 등에 의한 영향임.

자료: 국가데이터처(각 연도), 산지가격;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KAMIS(각 연도), 쌀(상품, 전체) 20kg 기준 소매가격.

유통업체(대형마트)의 쌀 가격은 전반적 하락세이나 전통시장 6만 5,000원 선이 유지됨.

| 유통업체 일별가격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 확정 수확량 발표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월 초 상승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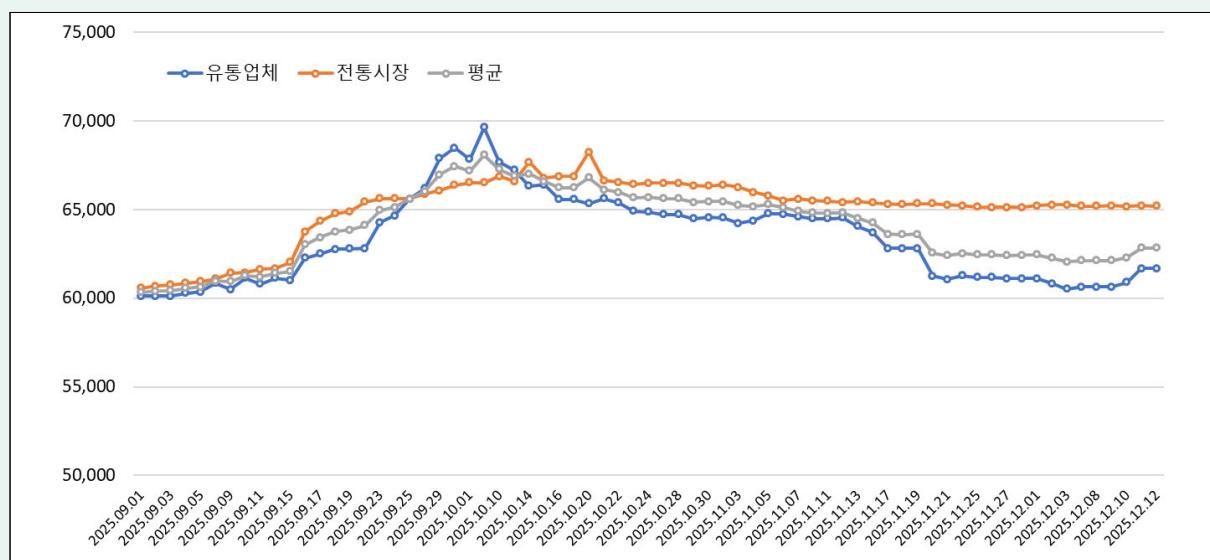
- 유통채널별 쌀 소비자 가격 일별 추이<그림 9>를 보면 유통업체의 소비자 가격은 10월 초고점 이후 10월 말까지 하락세였음. 11월 6일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임.
- 11월 13일 국가데이터처의 쌀 확정 수확량 발표 이후 유통업체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, 12월 초 상승세로 전환됨.

| 전통시장 일별가격은 10월 말 고점 이후 6만 5,000원 선이 유지됨.

- 전통시장 가격은 10월 중순까지 상승세 지속되다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나 하락 속도는 유통업체보다 늦음.
- 11월 13일 최종 쌀 생산량 발표 이후에 전통시장 일별 가격에서 반영되는 속도가 늦음.
- 유통업체의 경우 대량 매입, 정기적 가격 조정 구조 등으로 산지 매입가의 변동이 빠르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인 반면, 전통시장은 소량 판매로 가격 조정이 느림. 이로 인해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간 가격 차이가 커짐.

〈그림 9〉 유통채널별 쌀 소비자 일별 가격 추이

단위: 원/20kg



자료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KAMIS(각 연도), 쌀(상품, 전체) 20kg 기준 소매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함.

04 단기 전망



2025년산 도정수율 전년 대비 상승, 시장공급물량 안정화 전망으로 전반적인 수급 균형이 예상됨.
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(이하 KREI) 농업관측센터 표본 산지유통업체 조사 결과, 2025년산 중만생종 도정수율은 지역·품종 간 차이는 있으나 평균 70.7%로 조사됨. 최근 이상기후로 도정수율은 평년(72.0%)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.
- 금년 초과 공급 규모는 13만 2,000톤(생산량의 3.7% 수준)으로 추정되며, 정부의 수확기 대책(격리물량 10만 톤)을 고려하면 실질 과잉 규모는 3만 2,000톤 내외로 예상됨.

유통업체 소매가격은 전반적 하락세이나 산지가격 하락폭이 작아 소매가격의 추가적 하락 유인이 적어지고 있음.

- 2025년산 수확기(10~12월) 평균 쌀 가격은 10월 가격이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전년 수확기(4만 6,175원/20kg)와 직전 단경기(5만 3,951원)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.
- 이는 농가의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출하 지연의 영향으로 벼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RPC 현장 보고가 있었음(전남지역의 경우 산물벼는 대부분 전년 대비 90% 이상 물량을 확보했지만, 아직 건벼는 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).

농가 보유 재고량, 사업체 및 외식소비 증가 등에 따라 쌀 가격 변동 가능성성이 존재함.

- KREI 농업관측센터 표본 농가 조사 결과, 농가 보유 재고량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대농을 중심으로 향후 시세를 관망하며 출하될 것으로 예상됨.
- 또한 2장에서 분석한 대로 사업체 및 외식소비 증가세가 지속되어 수요가 증가 또는 유지된다면 가격 하락세는 더디게 나타날 수 있음.

감 수 승준호 부연구위원 061-820-2209 jhseung@krei.re.kr
내용 문의 이기현 부연구위원 061-820-2358 khlee0912@krei.re.kr

※ 본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문 및 감수 의견으로 도움을 주신 승준호 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
※ 「KREI 이슈+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
※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KREI 이슈+

제44호

쌀 수급 및 가격 동향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.)
 발 행 2025. 12.
 발 행 인 한두봉
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 우)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
 대표전화 1833-5500
 인쇄처 세일포커스(주)
 I S S N 2983-3418

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※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

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